영광군, 드론 프로젝트로 지역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20명 선발 드론교육
스마트팜 등 드론 일자리 연계

영광군이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프로젝트는 실업자, 창업예정자 등을 선발 일자리 연계로 농촌 고령화 사회의 시급한 문제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일자리창출에 보탬이될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전남도에서 공모하는 '2023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에 신청한 '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남도 대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드론산업은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레저, 물류, 교통, 스마트팜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에 선정된'영광형 K-드론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과정에는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창업예정자 20명을 선발해 드론 분야 실무위주의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드론 전문 인력 육성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창업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군이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영광형 K드론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나섰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관계자는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 거점도시로 도약해 좋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적벽 버스투어 확대 운영
화순군, 사전예약제→현장탑승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해 10월 31일에 체결한 '화순·광주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 으로 적벽 진·출입권에 관한 관리권이 화순군에 이양됨에 따라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재개되는 2023년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기존 사전예약제 '화순 적벽 버스투어(화순읍 출발)'와 사전예약 없이 현장탑승으로 진행되는 '적벽 셔틀버스'를 병행·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화순적벽 버스투어(화순읍 이용대체육관 출발)'는 25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토·일 요일 운행한다.

탑승인원은 회당 60명(2대)이며 이용요금은 1인당 1만원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독립 문화역사 탐방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장욱종) 청소년들이 지난 18일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을 찾아 독립역사관 탐방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인 '씨'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소년들은 이날 호남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과 상해임시정부청사를 재현해 놓은 독립 역사관을 감상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지난 18일 문화역사탐방 시간을 가졌다. 함평군 제공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곡성군, 4월 부터 무료

곡성군(이상철)은 오는 4월부터 옥과 아름드리나눔센터 국악전수관에서 상반기 국악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악전수관은 곡성 국악의 전통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악의 기능 보전과 교육을 통해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건립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구, 판소리, 민요, 가야금, 한국무용 5개 분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된다.

곡성국악전수관은 곡성군 옥과면 리문 3길 19-10 아름드리나눔센터 3층에 있다. 국악교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 희망자는 30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10월까지 국화분재 교육
함평군, 전국 국화동호인 대상

함평군은 전국 국화동호회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국화분재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화동호회 회원들은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4회에 걸쳐 전담 기술위원 지도로 국화분재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는다. 농업기술센터는 함평군 등록 품종인 나비연옥, 나비금향 등 9종을 회원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 특별 분양하고 있으며, 국화분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재 수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화동호회 회원들의 분재작품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전시할 예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청취

올해 1월1일 기준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2만92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4월1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산정 가격을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진용 기자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곡성군, 농민 부담 ↓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내 599농가에 농업기계 구입비 9억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2월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영농철 전 지원 농가를 확정해 대상자에 통보했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농가의 영농 규모와 연령 등을 고려해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영농 규모 1.5㏊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과 1.5㏊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구입비로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인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전남농기원 '지역특화작목 딸기' 미국·태국 수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프리미엄 딸기 수출 전문단지 조성 및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인 딸기를 미국·태국에 수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담양에서 육성한 신품종 딸기(죽향)를 생산하는 금성수출딸기출하회와 설향딸기를 생산하는 강진 농업회사법인 참별하㈜를 통해 이뤄졌다.

선적된 담양 죽향딸기(80㎏)와 강진 설향딸기(250㎏)는 각각 미국 동부지역 현지 프리미엄 시장과 태국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수출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문수출단지 조성 △딸기 육묘용 시설하우스 지원 △하우스 난방기 및 수출용 포장재 지원 △육묘기술·병해충 방제·농약 안전사용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전남농기원이 미국과 태국에 지역특화작목딸기 상차식을 가졌다. 도농기원 제공

전남의 딸기 재배면적은 831㏊로 전국 1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당도가 높고 경도가 좋아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 등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박간재 기자

상하수도요금 체납 징수
화순군, 6월 말 까지 체납 정리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반을 편성, 강제징수에 나선다.

3월 초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555건으로 체납액은 2억 9000만원이다.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지난 2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금액은 6억9000만원이며 징수 금액은 6억 1000만원으로 88%를 징수했다.

화순=김선종 기자